

한경협 ESG Bulletin

2025. 5 | 제 15 호

K-ESG 얼라이언스 사무국에서는 회원서비스 강화와 ESG 저변 확대를 위해 한경협 ESG경영자문단이 ESG 핵심 이슈에 대해 꼭 짚어 설명드리는 'ESG Bulletin'를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공시가 온다...우리 기업이 대비할 것은

구현화 한국경제매거진 기자
(한국경제인협회 ESG경영자문단)

얼마 전 울진의 국립해양과학관에 다녀올 일이 있었다. 지난 2020년 개관한 울진 국립해양과학관에서는 일반 관람객을 위해 바다와 관련한 많은 자료를 다루고 있다. 인상깊었던 것은 우리나라 연안의 생물다양성 섹션이 하나의 큰 전시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의 바다는 단위면적(1000km²)당 56종의 해양 생물이 발견되는 자연의 보고이며, 전체 연안에는 4878종의 해양 생물이 살고 있다. 얼마 전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에서 해양수산부는 76개 공약을 담은 '한국 블루 액션 플랜(Korea Blue Action Plan)'을 발표하며 해양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이는 생물다양성이 일상에 파고들었으며 동시에 국제적인 이슈로서 자리매김한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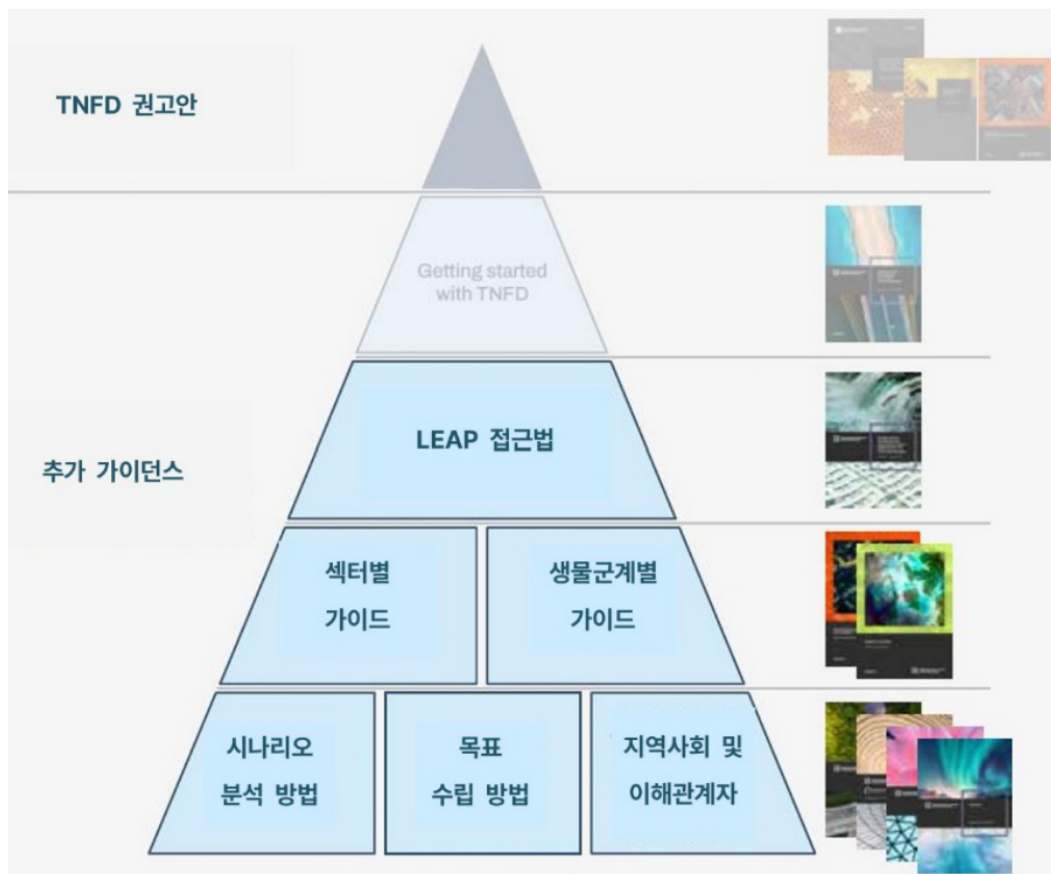
생물다양성은 더 이상 일부 환경단체의 용어가 아니다. 정부 정책은 물론 기업 활동에서까지 생물다양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단순히 기업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방법을 모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적, 운영적 리스크 측면에서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 모든 비즈니스 모델에서 자연은

가치 창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생태계 서비스의 형태로 투입 자본을 제공한다. 새로운 사업활동을 시작할 때는 물론 기존 사업의 경제성 평가에서도 생물다양성은 고려되어야 하는 필수 조건이 됐다. 아울러 글로벌 규제로서 생물다양성은 기후처럼 공시 시스템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생물다양성, 새로운 공시 테마로 부상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은 지구상의 생물종, 생태계, 그리고 유전적 다양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인간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을 제공한다. 생물다양성 감소는 자연자본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중단을 야기하는 중요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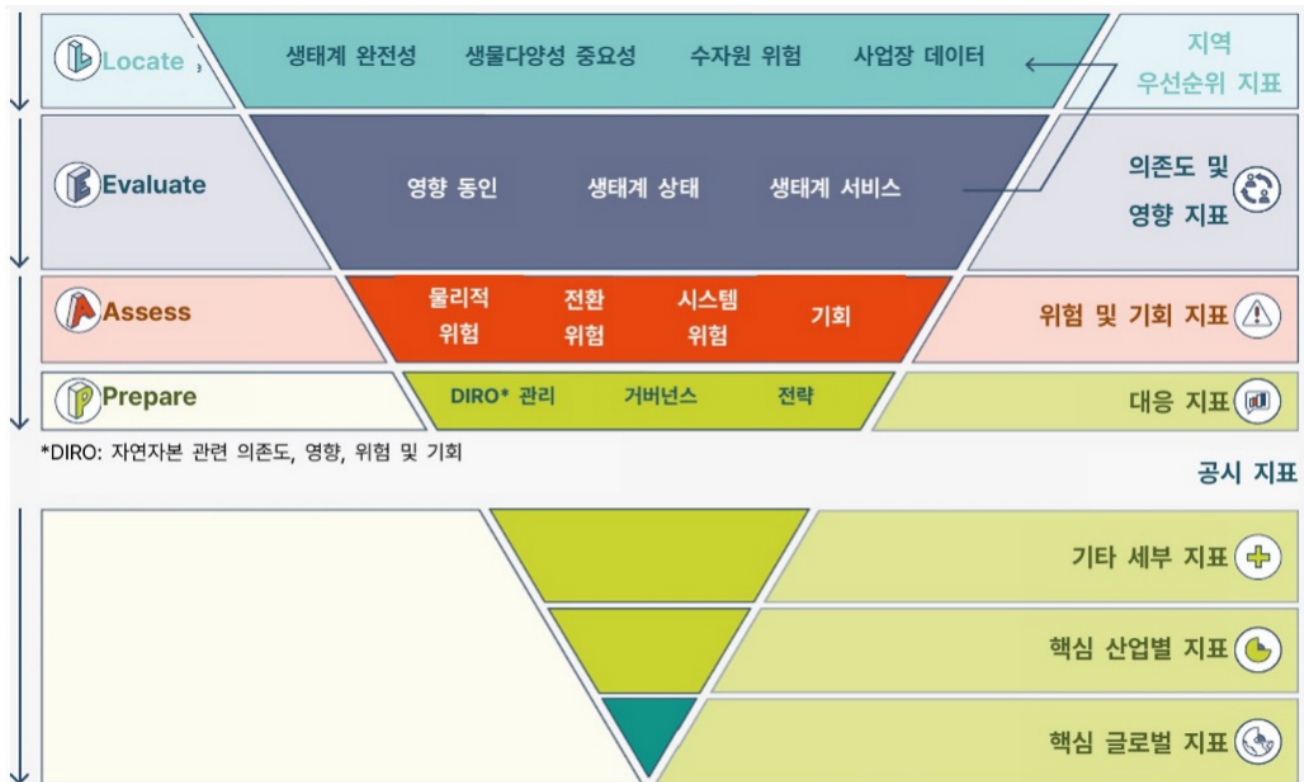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된 이래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COP10에서는 '아이치 목표'를 채택하였고,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2022년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 달성을 위한 글로벌 행동을 촉구했다. 네이처 포지티브란 2020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자연 손실을 중단하고 되돌리며, 2050년까지 완전한 회복을 달성하는 것이다. 2022년 몬트리올에서 전세계 육지와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생물다양성 글로벌 프레임워크(GBF)가 채택되었다.



<TNFD 추가 가이드. 대신경제연구소(2024)>

글로벌 차원에서 생물다양성은 이제 기후 다음의 새로운 공시체계로 자리잡아가는 추세다. 지난 4월 국제회계기준재단(IFRS)는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NFD)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자본 시장에서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로써 생물다양성·생태계·수자원 등 자연 정보도 ISSB 공시기준에 본격 포함될 예정이다. 이미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만드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S1(일반사항), S2(기후) 카테고리를 내놓았다. 기후 다음은 생물다양성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생물다양성은 S2를 이은 S3로, 사회적 불평등은 S4로 논의되고 있다.

TNFD는 2020년 발족 이래 의존성, 영향, 위험, 기회 등 자연 관련 이슈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TNFD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모델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지만, LEAP 방법론 등 세부사항에서는 다른 부분이 있다. LEAP(Locate, Evaluate, Assess, Prepare) 방법론은 TNFD가 제안한 자연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하고 공시하기 위한 접근 방식이다.



<LEAP 접근법과 연계한 TNFD 공시 지표 구조. 대신경제연구소(2024)>

아직 직접적인 규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미 글로벌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공시는 글로벌 연성 규제(사실상의 규범으로 작동하는 국제 기준)의 하나로 자리잡아가는 추세다. 현재 국제적으로 TNFD의 권고안을 자발적으로 채택한 글로벌 기업은 500여개에 이른다. 한국에서도 신한금융그룹, (주)SK,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리딩 기업들이 TNFD 공시를 적용하고 있다.

산업별 적용과 관련해 TNFD는 가이드를 세분화하며 기업의 필요를 소화하고 있다. TNFD는 지난 2024년 6월 의류, 섬유 및 신발, 음료수, 건축자재, 엔지니어링, 건설 및 부동산 부문에 대해 지침을 발표했고 올해 1월에는 어업, 해상 운송 및 크루즈, 수도 시설 및 서비스 등에서 초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부문별 지침은 2023년 9월에 발표된 핵심 권장 사항과 LEAP 기반 평가 방식을 보완한다. 부문별 지침은 자연 관련 문제를 평가하기 위한 TNFD의 LEAP 방식을 따를 때 부문별 고려 사항을 제공하고, 권장되는 부문별 공시 지표를 제공한다. 현재 TNFD가 최종 및 초안 지침을 제공하는 부문 수는 현재 지속가능성 산업 분류(Sustainability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SICS)의 50%를 차지한다. TNFD는 자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식품산업, 자원추출산업, 건설, 유틸리티 등에서부터 연관성이 적어 보이는 업종까지 지속적으로 산업부문별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진화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기업들은 ESG 대응의 하나로 생물다양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막상 생물다양성 관련 관리와 공시를 하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어려움을 호소한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사업장 주변의 생물다양성을 고려하는 방법론을 시범 적용해보는 데 그치는 상황이다. 의미 있는 공시로서 기능하려면 기업의 경영 전략에 지속가능성 내 하나의 분야로서 생물다양성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대응에 있어 이사회가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S&P 글로벌 서스테이너블(2023)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세계 대기업의 85%가 직접 운영 전반에 걸쳐 자연에 상당한 의존도를 보이지만, 생물다양성이나 기후와 같은 주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입증할 수 있는 이사회를 보유한 기업은 2%에 불과하다(월드 벤치마킹 얼라이언스, 2024). 딜로이트에 따르면, 자연은 전략적 경영 문제로 이사회가 감독을 필요로 하며 시장의 미래 전망 및 업계 법률의 영향과 같은 주요 경영 주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사회가 자연 관련 이슈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을 바라는 투자자의 기대도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2023년 스튜어트십 기대사항에서는 생물다양성과 자연 자본이 장기적인 가치 창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기업들이 자사 운영 및 전략에서 자연 관련 리스크를 어떻게 완화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UNEP FI와 딜로이트가 펴낸 '이사회에서의 자연(Nature in Boardroom)'은 이사회에서 자연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 효과적인 자연 거버넌스는 모든 C레벨 리더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며, 자연을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내재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올해 5월 TNFD는 여러 환경단체와 협업해 '기업 이사회를 위한 자연 리스크 대응 가이드라인(Asking Better Questions on Nature For board directors)'을 내놓았다. 경영진이 우리 조직의 자연에 대한 의존도와 영향이 어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 관련 기회는 첫째로 자연 관련 리스크 회피 및 감소, 완화, 관리의 측면과 둘째로 비즈니스 모델, 제품, 서비스, 시장, 투자 구조의 전략적 전환이 있다. 이 두 가지

기회 유형을 모두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취약한 산업 분야는 더욱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내에서도 최근 건설산업연구원이 생물다양성에 취약한 업종으로 손꼽히는 건설기업을 위해 '건설기업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네이처 포지티브 경영'이라는 보고서를 내 화제가 되었다. 국내외 주요 건설기업의 네이처 포지티브 경영 사례분석과 함께 생물다양성 보전 핵심성과지표(KPI)를 도출하고, 성과 측정 결과를 기초로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와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피드백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올해 12월부터 유럽 산림전용방지법(EUDR)을 시행한다. 해당 규정은 산림 벌채로 만들어진 토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EU 내 유통을 금지해 산림 파괴와 온실가스 배출,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한다. 소고기, 팜유, 대두, 목재 등을 EU로 수출하는 식음료 업종도 해외 공급망 내 생물다양성 침해 여부를 점검하고 예방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이 자연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는 셈이다. 지난 4월 환경부는 국내 기업을 돕기 위해 한국 자연자본공시 지원연합을 출범하고 기업의 대응 마련에 나섰다. 생물다양성 공시는 먼 미래가 아니라 곧 올 미래이며, 글로벌 공급망의 일원으로서 국내 기업이라면 더욱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문제다.